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0년 1월 제239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앙첸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시루봉 정기 받아 흰쥐의 해, 바지런하게 살아갑시다"

충기총동문회충기산악회 경자년 시산제 보문산에서 경건하게 봉행

부지런한 흰쥐의 해 경자년을 맞이하여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충기산악회(회장 진춘식)는 1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문산 문화광장에서 충남기계공고 3만3천 여 동문과 설송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이날 시산제 등반에는 진춘식 충기산악회회장(21회)을 비롯해 오응수(1회)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3회)과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장희석 자문위원(4회), 이장수 자문위원(8회),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16회) 등 동문과 가족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시산제는 진춘식 충기산악회장을 제주로 선후배 동문들이 정성껏 절을 올리며 한 해의 동문가족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빌었다. 이완구 동문(10회)은 축문에서 "금일 충남기계공고 동문 일동은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내일의 번영과 도약을 위한 일념으로 동문의 정성을 모아 성스러운 제를 올린다"며 "경자년 한 해 충남기계공고 동문과 동문가족이 건강하고 동문화합으로 사랑이 넘쳐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문회가 되도록 엎드려 고한다"고 축원했다.

보문산(寶文山)은 대전 중구 대사동(大寺洞) 등 12개 동에 걸쳐 있는 주산으로 높이는 457.6m이고, 주봉은 시루봉이다. 시 중심부 남쪽에 솟은 산으로, 보물이 묻혀 있다 하여 보물산이라고 불리다가 보문산이 되었다거나, 나무꾼이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줘서 얻은 '은혜를 갚는 보물주머니'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대전의 대표적인 녹음공원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 여러 문화재와 함께 휴식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또 골짜기마다 20여 곳의 약수터가 있고 시루봉 아래 고촉사에는 미륵상을 닮은 자연 암석이 있다.

충기총동문회충기산악회 경자년 시산제가 보문산에서 열려 한 해의 안전과 행운을 기원했다.

이날 동문들은 문화광장에서 시루봉길로 등반한 후 고촉사쪽으로 내려와 산중턱 맷돌식당에서 점심을 들며 정담을 나눴다. 오응수 총동문회 고문은 "경자년에 부지런히 산행하여 건강하게 살자"며 "총동문회와 산악회의 화목과 발전, 그리고 동문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이장수 전 충기산악회장은 "아아, 그 이름 높이 빛낼-충남기계공고"라는 건배사를 제의하며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진춘식 충기산악회장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올해도 보문산에서 시산제 행사를 열고 동참해주신 선후배님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5월무렵에 열릴 제10회 충기인한마음등반대회를 1박2일로 제주 한라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기동문들이 보문산 정상 시루봉에서 상쾌한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충기산악회는 총동문회 산하 모임으로 매년 5월 모든 동문과 가족 학부모, 재학생들이 참석하는 한마음 등반대회와 가을 등반여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등반하고 있다.

※충기산악회 문의:
김정규 총무(35회) 010-9240-3557

– 신도성 편집위원 –

제84차 총동문이사회 개최 공고

올해는 모교 개교 57주년을 맞는 경자년입니다. 3만3천654명 동문의 발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해에 총동문회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이사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가.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오후 6시 30분
나. 장소 : 모교 시청각실

※안건 – 제1호 의안: 2019년 결산 보고의 건
– 제2호 의안: 2020년 예산(안)의 건
– 제3호 의안: 정기총회 개최 일정의 건
– 기타 안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경자년, 만사형통하시고 사랑과 행복 충만하시길”

[총동문회장 신년사] “내년 전국기능경기 개최 앞두고 역사관 등 보완 시급”

친애하는 3만3천여 동문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동문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경자년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흰쥐의 해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열심히 즐겁게 노력하여 만사를 막힘없이 풀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교는 개교 57년을 맞아 올해 1월 8일 열린 55회 졸업식에서 384명의 졸업생으로 모두 3만3천654명의 동문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배출된 것에 걸맞게 이제는 한 단계 향상된 모교와 총동문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동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셔야 3만3천여 명의 동문에 걸맞는 총동문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동참하여주신 역대 회장님과 각 지역, 회수, 직장 동문회장님과 대의원을 비롯한 동문 선후배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모교발전과 재학생 학력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의만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동문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역대회장님께서 모교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여 대내, 외적으로 충기공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교는 내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노후 건물에 대한 시설 보완이 시급합니다. 아쉽지만 우선 기숙사동 리모델링 작업이 겨울방학 동안 시작되었고 기타 건물이 보강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동에 위치한 충기역사관 보완작업은 동문들이 정성을 쏟아야 할 사업입니다.

모교의 나이도 이제 57세 연륜인 만큼 3만3천여 동문 모두가 빗장을 풀고 모교 발전에 더욱 힘과 관심을 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경향 각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문들을 배출한 명문 특성화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총동문회의 활성화에 모두 진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만3천여 동문 여러분!

모교 없는 졸업생 동문은 없습니다. 우리 총동문회 집행부는 모교발전이 곧 동문회 발전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후배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충기동문회가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야 합니다. 더 화합하고, 함께 뭉쳐서 작은 목소리도 함께 고민하고 기뻐하면서 100년을 향해 내실을 다져가는 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충기총동문회가 계속 전통을 이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20회, 30회 이하 동문회 구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문회 행사에 선후배 동문들이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한 흰쥐의 해인 경자년에 모든 동문들에게 행운이 깃드시고 사업과 직장 운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총동문회장 박 대 용 올림

“6학년 아름다운 삶 위해 국내외 수학여행 추진”

13회동문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김산영 동문 취임

13회동문회(일삼회) 정기총회가 1월 13일 오후 7시 대전 장금이우렁쌈밥식당에서 13회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산영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13회 동문들은 그동안 졸업 40주년기념행사 등을 비롯해 13회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 김광시 전임회장과 백두현 13회동문후원회장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13회동문회는 김산영 회장이 취임한 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부회장에는 유병덕, 노영삼 동문이 선임되었고, 운영국장에 황규성, 재정국장에 이현철 동문이 수고해주기로 했다, 감사에는 문행모. 송승용 동문이 지명되었고, 이사 및 후원자문위원으로 김광시, 백두현, 김학경, 문행모, 송승용, 황순찬 동문이 뽑혔다.

13회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려 회장 이취임식과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김산영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갑 및 제2의 인생으로 6학년의 아름다운 삶을 추억하기 위해 국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며 “13회 친구들이 대동단결하여 월례회와 동문회 사무실에 얼굴보여주기, 취미활동 등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규성 편집위원(13회) -

2020년 자랑스런 충기인상 후보자 공모

- 접수기간 :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4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 시 상 : 총동문회장 상패 및 부상
- 자 격 : 해당부문 종사자로서 총동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문
- 제출서류 : 총동문회 소정양식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시상부문 : 분야별 각 1명(산업부문, 행정부문, 치안 및 군인부문, 체육부문)
- 수상자 선정 및 발표 : 상벌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후 개별 통보
- 총동문회 소정양식 : 공적조서 1부, 이력서 1부, 단체장추천서 1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총동문회홈페이지 참고)

문의 및 접수처 : 총동문회사무실 전화 : 042-252-5656 E-mail : 2525656@hanmail.net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화합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문회 되게 하소서"

초헌

축문 낭독

절 받으소서

정성껏 잔 올리오니

안전산행 원 하옵니다

슬슬 올라갑시다

선후배 담소

중간 지점

고촉사

포대화상 옆으로 시루봉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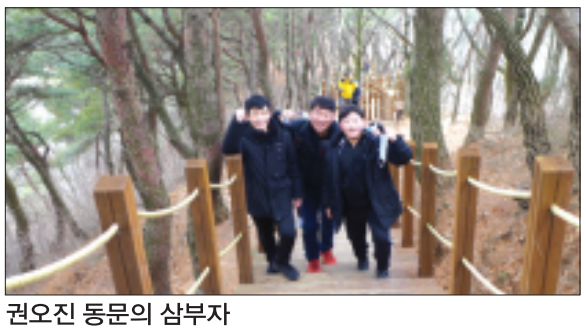
시루봉 100미터 앞에다 두고

오응수 총동문회 고문

한흥교 사무총장

우리는 충기선후배

기분이 상쾌해요


권오진 동문의 삼부자

마지막 등반자

야, 시루봉 정상이다

멀리 보문산성 정자가 보인다

오응수 고문 건배 제창

이장수 자문위원 건배

“25회동문회 발족, 올해 졸업 30주년행사 멋지게 치르겠다”

초대 회장에 유경상 동문 “26회 후배들에게 모범 보일터” 각오 다져

25회 동문들이 올해 11월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25회동문회를 발족했다. 25회 동문들은 1월 4일 유성 띠울석갈비식당에서 25회 동문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발기인으로 강풍원, 김광석, 김부희, 김성일, 김영도, 김제성, 노순섭, 도중은, 박선규, 송수용, 송은택, 신장식, 안승락, 유경상, 류창오, 이계춘, 조정상, 조종현, 최정덕, 허영준, 홍준용(이상 가나다순)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은 25회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박대용 총동문회장을 대신하여 격려금을 전달했다.

25회동문회 발족식이 유성에서 열려 올해 11월에 개최하는 졸업30주년기념행사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25회동문회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에는 유경상(밀링) 동문이 선출됐고, 사무국장 홍준용(제도), 재정국장 김영도(선반), 기획홍보단장 신준현(제도) 동문이 우선 선임됐다.

25회 동문들은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제31회총동문체육대회 참석에 이어 11월 9일 열린 24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 25회 박선규, 허영준, 김영도, 홍준용, 신준현, 이계춘 동문이 참석하여 ‘졸업30주년기’를 인수하고 선배들의 행사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25회 동문을 아우르는 전체동문회가 없어 본격적인 동문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1월 4일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25회 동문들이 참석했는데, 충남 태안에서 온 신장식 동문(한화전력 대표)은 “태안에서 동문회 활동으로 친목을 다져왔는데, 막상 25회동문회가 없어 허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움직여 졸업30주년기념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동문은 또한 “올해 3월에 모교 입학식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아들 신승민 군(태안중 졸업)이 모교 전기과에 입학하여 기쁘다”고 토로했다.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이 25회동문회에게 총동문회 격려금을 전달했다.

유경상 25회동문회장은 “지천명의 나이를 앞두고 친구들이 모교와 동문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모교 동문회의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멋지게 치른 후 26회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넘겨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5회 동문들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대전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조직정비와 동문회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회 동문 연락처; 홍준용 25회 동문회 사무국장. 010-8939-5708.

– 신도성 편집위원 –

“친목도모와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

대전동문회 정기총회 전상록 회장 취임

대전동문회는 1월 9일 저녁 유성띠울석갈비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덕기 회장의 후임으로 전상록 동문(16회)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상록 신임 회장은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덕기 전임 회장님과 10년간 운영총무를 맡아 고생한 이진혁 동문과 재정담당 우승규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대전동문회가 친목도모와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흥순 동문(26회)을 운영총무로, 우승규 동문(30회)을 재무로 각각 선임했다. 대전동문회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으로 매월 9일 저녁 월례회를 갖고 있다.

– 황규성 편집위원(13회) –

“소모임 동문회 발전기금 잇따라 납부”

전기과 7회 모임, 방직과 9회청심회

소모임 동문회에서 새해를 맞아 총동문회발전기금을 잇따라 납부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방직과 9회 모임인 청심회(회장 김순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월 정기모임을 갖고 총동문회 연회비를 회비에서 단체로 송금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바로 총동문회 통장으로 26만원을 송금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김순규 청심회장을 비롯해 권병근, 송병전, 노태평, 조동민, 김정곤, 박천길, 우창배, 한공수, 송진헌, 이주경, 김덕호, 최재일 동문이다. 청심회는 우정과 친목을 나누며 30년 동안 유지된 모임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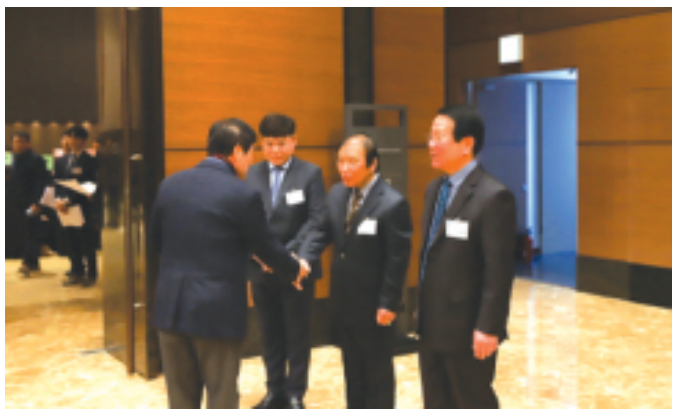
한편 전기과 7회 소모임도 1월 모임을 갖고 김영금, 김용달, 송인범, 문제대, 우창석, 유중조, 윤석천, 윤용길, 이재원, 이종욱, 임경선, 전호필, 정하연, 조정현, 차연수, 천강춘, 한인수, 황규학 동문이 낸 총동문회 발전기금 36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 해마다 1월 초에 동문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청심회 김순규 회장은 “앞장서서 총동문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라고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친구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힘든 상황에도 기죽지 말고 최선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기룡전기 2019 송년회에서 모교에 1천만원 장학금 전달

기룡전기 2019년 송년회가 유성ICC호텔에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중선 기룡전기대표이사가 황의만 교장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룡전기 임직원이 송년회에 참석한 내빈을 맞고 있다.

가수 금잔디가 송년회에서 ‘오라버니’를 열창하고 있다.

모교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 중에 자랑스런 기업이 여러 개 있다. 그중 하나가 기룡전기㈜이다.

기룡전기는 2019년 송년회를 12월 27일 유성ICC호텔 컨벤션홀에서 500여 명의 회사가족과 충기동문,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기룡전기 송년회에는 축하공연으로 가수 금잔디가 출연했고, 내빈으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종천 대전시 의회의장, 박성효 전 대전시장, 장종태 서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배우 정준호씨와 장경동 목사 등이 축하차 참석했다.

기룡전기는 현 대표이사인 이중선 동문(35회)이 선친인 고(故) 이성노 씨가 2006년 창업한 회사를 이어받아 관공서, 연구소,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기공사를 펼치고 있다.

기룡전기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재를 추진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 모델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여념이 없다. 2011년엔 무정전 전문기업으로 등재하면서 자본금을 늘렸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도 등록해 사업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사업분야만 하더라도 전기를 기본으로 통신·소방·철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 10여 개나 된다.

이중선 대표가 기룡전기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그의 고교시절 일대기가 알려지면서부터다.

충남기계공고 전기과 출신인 이 대표는 고교시절 마음을 못 잡고 방황했지만, 이재범 교사(8회) 등 모교 은사들의 가르침으로 아버지를 따라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촉망받는 전기업계 CEO가 됐다.

이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전기공사 기술을 익히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젊음 하나를 무기로 전국각지를 다니다보니 어느새 성실 시공을 하는 젊은 전기 기술인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기룡전기는 이제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기공사를 맡고 있는 저력으로 성장동력이 탄탄해지고 있다. 기룡전기는 특히 이중선 대표이사가 동문 선배인 이우정 회장(3회)과 서한수 부회장(3회)을 모셔오면서 회사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함께 ‘전깃밥’을 먹는 식구들을 챙기기 시작해 재작년 ‘송년의 밤’행사에선 5년 근속 직원들에게 황금열쇠를 증정하는 등 매년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모교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룡전기는 2019년 송년의 밤 행사에서도 이중선 대표가 황의만 교장에게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재 기룡전기에는 충기 출신 직원이 24명 근무하고 있다.

황의만 교장은 “자신의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잊지 않고, 힘든 환경에 처한 후배들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도록 장학금을 주어 감사하다”며 “선배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본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중선 대표는 “인생은 반드시 성적순이 아니다. 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미래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후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내년 졸업40주년행사 준비 협조 당부”

16회동문회 신년모임 박대용 총동문회장 등 참석

16회동문회(회장 윤석길)는 1월 10일 저녁 대전 둔산동 소재 둔산정에서 신년모임를 개최 했다.

이날 신년 모임에는 박대용 총동문회장 등 20여 명의 친구들이 참석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옛 추억을 되새기는 모임이 되었다.

윤석길 16회동문회장은 “친구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모임에 적극 동참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모임에서는 16회 동문의 자랑인 박대용 총동문회장도 참석해 “친구들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경자년 새해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윤석길 회장은 모임 말미에 “16회 친구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멋진 모임과 즐거운 시간을 같이하는 친구가 되자”는 말과 함께 건배를 제의했다.

– 김희곤 편집위원(16회) –

“모든 행동에 책임, 용기 갖고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모교 제55회 졸업식 384명 졸업, 총동문수 33,654명

모교 제55회 졸업식이 1월 8일 대강당에서 가족들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고사하는 황의만 교장

축사하는 박대용 총동문회장

모교 55회 졸업식이 1월 8일 오전 10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려 3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로써 모교 졸업생은 33,654명이 되었다.

이날 졸업한 동문은 CNC선반과 2개반 54명, CNC밀링과 2개반 53명, 산업설비과 2개반 55명, 금형과 3개반 83명, 응용소재과 1개반 24명, 전기과 2개반 58명, 전자기계과 2개반 57명이다.

이 자리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및 총동문회 임원진, 그리고 외부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졸업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 순서로 이어졌으며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는 학생들의 표정은 즐거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영예의 교육감상은 산업설비과 유관영 학생이 수상했으며, 총동문회장상은 CNC밀링과 변동규 학생이 수상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상에 전기과 갈창민 학생이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외부상 수상자가 있었다. 교과우수상은 CNC선반과 임형균 학생 외 54명, 공로상에는 응용소재과 이동현 학생 외 39명, 특기상에는 CNC선반과 황상연 학생 외 98명, 봉사상에는 금형과 정석진 학생 외 15명과 3년간 성실히 학교 생활하여 받게 되는 3년 개근상에는 전자기계과 김준혁 학생 외 100명과 3년 정근상에는 금형과 김도연 학생 외 123명이 수상했다.

한겨울에 주룩주룩 내리는 우중에도 졸업식장은 일찍이 현장실습에 임하다가 몇 개월 만에 졸업식을 위하여 참여한 학생들이 그 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으로 화기애애했으며,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족 친지 및 축하객들의 기념촬영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예전 졸업식의 전유물이었던 교복 찢기, 밀가루 뒤집어쓰기, 날계란 던지기의 어수선했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졸업생들은 말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으로 즐거운 졸업식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황의만 교장은 회고사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용기를 갖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3년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배 동문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학력보다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인만큼 도전정신을 갖고 진취적으로 생활하길 바라고, 남에게 베푸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충기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병춘 편집위원 (11회. 모교 교사) –

“자기 발전위한 귀한 시간 보내야”

겨울방학 1월 7일부터 3월 1일까지 52일간

모교에서는 1월 7일 겨울 방학식을 가졌다. 예전의 겨울방학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방학을 시작했으나 이번 겨울방학은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1월 8일 방학에 들어갔다.

이번 겨울방학은 1월 8일부터 방학에 들어가서 3월 1일까지 52일간이며, 방학중 2월 19일 하루 등교하여 새 학년의 반 편성, 시간표, 기타 사항을 전달받아 새 학년을 준비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동안 미래의 꿈을 키우던 교정을 떠나 가정에서 긴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갖을 것이며, 일부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등교를 하는 학생과 외국(영어, 일본어, 중국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능 연마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취업의 문이 좁아져 졸업생이나 졸업예정 학생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는 현실에서 새해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기 바라며 학생들도 이번 겨울방학이 자기 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본다.

2학년 합창대회 금상 ‘누가 죄인인가’ CNC선반과 영예

교내합창(UCC) 페스티벌 및 설송제, 1학년 UCC대회 금상 1-11반

교내합창 페스티벌 및 설송제가 1월 3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개최됐다.

모교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2019학년도 교내합창(UCC) 페스티벌 및 설송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1학년은 그동안 UCC를 제작한 동영상 발표와 2학년은 반별로 합창 실력을 발표함으로써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협동심 배양 및 전인교육을 기르는데 일조를 했다.

행사는 1학년 UCC 발표는 학급별로 테마를 정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문가에 버금가는 내용과 편집기술을 볼 수 있었다.

이어 2학년 학급별 합창 발표에서는 기말고사도 있고 각종 자격증 시험도 있었을텐데 학급별 전원이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화음과 율동을 뽐냈다.

설송제에서는 여는 마당으로 6명의 여선생님들이 걸그룹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 많은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기타동아리 학생들의 공연, 보디빌딩 공연, 설송가요제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공연으로 특별공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외부 학교 여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공연에서 모교 학생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푹 빠져들었다.

합창대회를 통해 처음 무대에서 본 학생들은 긴장하여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반이 있었지만 무대 매너와 멋진 율동으로 관중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1학년 UCC 대회 금상은 1-11반, 은상은 1학년 2반, 동상은 1학년 9반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2학년 합창대회 금상은 ‘누가 죄인인가’를 부른 CNC선반과가 차지했으며 은상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 카레’를 부른 산업설비과가 차지했고 동상은 ‘Circle of Life’를 전기과 학생들이 차지했다.

황의만 교장은 “올 한해 동안 학교를 빛내준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입 현황

기간 : 2019년 12월 24 ~ 2020년 1월 28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자	1	정성택	20,000	광	8	김영준	20,000	기	16	노승억	20,000
방	2	이동영	20,000	전	8	임헌표	50,000	전	16	성기일	20,000
전	3	김용호	2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16	윤석길	40,000
자	3	박양진	20,000	기	9	홍성헌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방	3	박태희	100,000	전	10	김용대	20,000	기	16	이은찬	20,000
방	3	송재석	20,000	자	10	박지서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방	3	오장국	20,000	자	10	이경세	5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3	윤여숭	50,000	자	10	홍성주	20,000	전	16	한흥교	20,000
자	3	이만근	20,000	전	11	남상천	20,000	금	17	민영삼	30,000
전	3	이우정	20,000	자	11	양준전	20,000	기	18	신동현	20,000
광	4	금기붕	20,000	기	12	고인환	20,000	기	18	윤병진	20,000
자	4	김영진	50,000	기	12	공재하	20,000	기	19	박문수	20,000
광	4	이장래	20,000	기	12	오승수	20,000	기	19	양승주	20,000
광	4	장희석	20,000	기	12	이종화	20,000	기	19	임운택	20,000
자	5	박돈서	50,000	기	13	박상영	20,000	기	20	강인용	40,000
자	5	한상덕	50,000	기	14	송수헌	50,000	전	21	오원석	20,000
전	6	유동균	5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1	윤필중	20,000
자	7	김성헌	20,000	기	14	진대영	20,000	기	24	남광덕	50,000
광	7	이동승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4	정상복	20,000
전	7	전관수	20,000	기	15	박찬영	20,000	기	26	남경윤	20,000
자	7	조봉호	20,000	전	16	김희곤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기과 7회 동문 연회비

전	7	김영금	20,000
전	7	김용달	20,000
전	7	문제대	20,000
전	7	송인범	20,000
전	7	우창석	20,000
전	7	유중조	20,000
전	7	윤석천	20,000
전	7	윤용길	20,000
전	7	이재원	20,000
전	7	이종욱	20,000
전	7	임경선	20,000
전	7	전호필	20,000
전	7	정하연	20,000
전	7	조정현	20,000
전	7	차연수	20,000
전	7	천강춘	20,000
전	7	한인수	20,000
전	7	황규학	20,000

청심회(광산과 9회동문) 연회비

방	9	권병근	20,000
방	9	김덕호	20,000
방	9	김순규	20,000
방	9	김정곤	20,000
방	9	노태평	20,000
방	9	박천길	20,000
방	9	송병전	20,000
방	9	송진헌	20,000
방	9	우창배	20,000
방	9	이주경	20,000
방	9	조동민	20,000
방	9	최재일	20,000
방	9	한공수	20,000

회보 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전	18	마수용	100,000
기	18	장영우	200,000
업체		크라운뷔페	70,000

'멸종위기 담비' 포착 정재훈 동문 목요언론인상 대상

충기언론인회 동문들 "자랑스럽다" 축하

계족산에서 촬영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란 목도리 담비'의 생생한 모습.

정재훈 동문(20회. 충청투데이 사진부장)이 멸종위기 노란목도리 담비 대전 계족산서 발견'으로 12월 26일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이 개최한 '2019년 목요언론인 대상'시상식에서 사진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정재훈 동문의 '멸종위기 노란목도리 담비 대전 계족산서 발견'은 대전을 대표하는 휴식처인 계족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란목도리 담비'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해 살아 숨 쉬는 자연을 사진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재훈 동문은 "환경부 멸종위기 2급 보호종으로 국립공원 지리산에서만 서식한다는 노란목도리 담비가 대전 계족산에서 서식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며 "목격담을 종합해 계족산 임도를 따라 한달간 탐조한 결과, 노란목도리 담비를 카메라에 담는데 성공했다.

담비는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과는 달리 혼자 다니는 동물로써 매우 민첩해 카메라에 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취재 상황을 회상했다.

정재훈 동문(사진 오른쪽)이 2019 목요언론인상 사진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정 동문은 이어 "대전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파트 개발이 많은 지역이므로 도심 속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랑목도리 담비가 계족산에서 목격됐다는 것은 주변 자연환경이 건강한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충기언론인회장)은 "정 동문은 그동안 사진 부문에서 특종을 많이 찍어 수많은 상을 차지한 베테랑"이라며 "언론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2019 목요언론인상 신문·통신 부문은 중도일보의 임효인 기자의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진실을 재조명하다-런던에서 산내까지'가 선정됐고, 방송 부문은 KBS대전방송총국의 정재훈·서창석 기자의 '유성온천 우라늄·라돈 고농도 검출'이 차지했다.

〈사진 자료 제공=충청투데이〉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엔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 (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일테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골프레사 주문제작 및 수리 여러 주문기기 입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골프레사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용프로 골프
한국골프클럽피팅협회 Korea Golf Club Fitting Association
대표 임 태 수 (6회)
지정 피팅골프샵 010-5401-348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68-18
Tel. 042-823-9044 Fax. 823-9055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현(12회)

CHUNGHO 청호나이스 www.chungho.co.kr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청호나이스 25년 기술력의 결정체 휘카페 – IV 엣지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18년 연속 수상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우케미컬 및 칼곤사의 필터 재료사용
대전유성지사 박 선 규 (25회)
010-3882-5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5, 5층(지족동)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 (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기총동문회 대표전화 252-5656으로 변경

공사로 3월 중순까지 사무실 교내 옆 건물로 이사

충기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가 종전 (042)282-5658에서 (042)256-5656으로 변경됩니다. 팩스전화는 (042)584-5658로 종전과 같습니다.

한편 기숙사동 건물 보강 공사로 총동문회 사무실이 3월 중순까지 모교 진로활동실 1층으로 이사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